

[사회]

귀성 5일·귀경 7일 가장 혼잡

추석 귀성길 서울~광주 7시간 걸릴 듯

올 추석 연휴 서울~광주를 오가는 데는 승용차 기준 귀성 7시간, 귀경 7시간20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귀성길은 10월5일, 귀경길은 10월7일에 도로가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1일 10월3~8일을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교통대책을 발표했다.(표)

◇교통상황=올 추석 연휴에는 1일 평균 650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 추석에 비해 4.2%, 평상시 대비 79.1% 증가한 것이다.

귀성 차량의 출발 예정일은 ▲10월5일(50.4%) ▲6일(18.7%) ▲4일(10.9%) 등 순으로, 귀경길은 ▲10월7일(36.2%) ▲6일(26.4%) 등 순으로 예상된다.

귀성시 주요 도시간 최단 소요시간은 귀성시 ▲서울~광주 7시간 ▲서울~대전 4시간40분 ▲서울~부산 8시간50분 등이다. 귀경시에는 ▲서울~광주 7시간20분 ▲서울~대전 5시간40분 ▲서울~부산 9시간 등으로 예상된다.

◇교통대책=연휴기간 고속버스는 예비차 139대를 투입, 1일 평균 342회가 증가한 6천805회를 운행한다. 시외버스는 전세버스 2만6천502대를 활용해 탄력적으로 운행

■국도 임시개통 구간

시행형	공사명	노선	공정연장(km)	추석 연휴 임시개통 구간	추석 연휴 임시개통 구간
익선형(3개소)	주생~광지	17	6.4	5.0	남원시 주생면 중동리~남원시 광지동
	함평 C	23	10.03	3.8	함평군 함평면 기림리~함평군 함평면 진암리
	영광~해보	22	21.0	13.1	영광군 영광읍 학정리~함평군 해보면 해보리

할 계획이다.

철도는 1일 평균 객차 수를 평소 대비 15.8% 증가한 6천3량을 운행하고, 도서지방 이동객을 위해 연안 여객선은 1일 평균 164회를 추가 투입한다. 국내선 항공편은 1일 평균 21편을 증편키로 했다.

귀경시에는 10월6일 정오부터 8일 자정까지 경부고속도로 안성·오산·기흥·수원 IC와 서해안고속도로 발안·비봉·매송IC에서 진입통제가 이뤄진다.

10월 6~8일 새벽 2시까지 수도권 주요 지하철과 고속버스 터미널을 경유하는 광역·간선버스가 연장운행하며 10월5일 새벽 4시부터 9일 새벽 4시까지 개인택시부제도 일시 해체된다. /서울=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내달부터 광주서도 토플시험

전남대 공식 고사장 지정

10월부터 광주에서도 토플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됐다.

전남대는 대학 언어교육원(원장 안병규 영어교육과 교수)이 최근 ETS로부터 iBT TOEFL 공식 고사장으로 지정돼 오는 10월1일 첫 시험을 치른다고 21일 밝혔다.

iBT(Internet Based Tests) TOEFL은 응시생들의 통합적인 영어 구사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토플 시험기관인 미국 ETS가 새롭게 도입한 평가방식이다. 기존의 CBT(Computer Based Tests)와 달리 시험문제가 인터넷을 통해 미국 현지에서 실시간 출제되고, 기존의 토익에서 문법 영역이 없어지는 대신 말하기 영역이 추가됐다.

그동안 광주·전남지역에는 CBT 토플 공식고사장이 없어 많은 학생과 일반인들이 시험을 치르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가야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올해 첫 시험은 10월1일 오후 5시30분 언어교육원 본관 2, 3층 멀티미디어실에서 12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11월3일 오후 5시30분(120명) ▲12월1일 오후 3시30분(120명) 시험이 치러진다.

접수는 온라인(http://toefl-registration.ets.org/TOEFLWeb/ETSUSERLogonPrompt.do) 또는 한미교육위윈단(프로메트릭스 등록센터 전화 02-3211-1233)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문의: 전남대 언어교육원 종합안내실(062-530-3631~3)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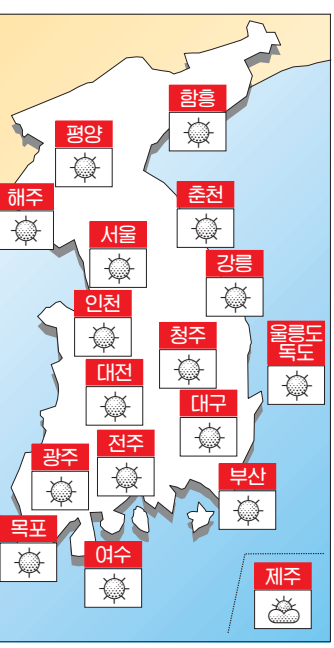
“아침안개 주의” 9월 22일

대체로 맑겠으나 아침에 안개 끼는 곳이 있겠다.



9월 22일 (음 8월 1일) 

◇전국날씨

지역	기온	강수량
광주	16~28°C	맑음
대전	16~26°C	맑음
대구	19~25°C	맑음
부산	16~28°C	맑음
제주	15~29°C	맑음
서울	16~28°C	맑음
인천	15~29°C	맑음
대전	17~27°C	맑음
대구	14~28°C	맑음
부산	15~28°C	맑음
제주	15~29°C	맑음
서울	17~27°C	맑음
인천	14~28°C	맑음
대전	15~28°C	맑음
대구	15~29°C	맑음
부산	16~28°C	맑음
제주	13~27°C	맑음
서울	15~27°C	맑음
인천	16~28°C	맑음
대전	13~27°C	맑음
대구	15~27°C	맑음
부산	16~28°C	맑음
제주	15~27°C	맑음



서해남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0.5~1.0m
 먼바다=북동~남동풍 파고 1.0~1.5m
 남해서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1.5~2.5m
 먼바다=북동~남동풍 파고 2.0~3.0m
 목포 밀물 < 02:09 썰물 < 07:25
 14:18 19:34
 여수 밀물 < 08:59 썰물 < 02:47
 21:10 14:58

날짜	23(토)	24(일)	25(월)	26(화)	27(수)	28(목)
날씨						
최저/최고	15/27	16/27	15/27	16/26	16/27	16/26

미혼여성 절반 “성경험 있다”

교사 아내·공무원 남편 최고

미혼여성의 절반이 성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결혼정보회사 ‘듀오’(www.duoinfo.co.kr)에 따르면 7월31일부터 8월31일까지 전국의 미혼 남녀 2천72명(남성 724명, 여성 1천348명)을 대상으로 ‘이성적 배우자 상(象)과 결혼의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미혼여성의 49.4%가 성 경험을 고백했다.

첫 성 경험 시기는 ▲21~23세(23.0%) ▲24~26세(10.5%) ▲18~20세(5.9%) 등의 순이었다. ‘성 경험 없음’은 절반이 채 못되는 49.1%였다.

반면 남성은 ▲21~23세(35.4%) ▲24~26세(24.9%) ▲18~20세(11.9%) ▲경험 없음(11.9%) 등이라고 응답했다.

배우자 직업을 묻는 질문에 여성의 53.1%는 공무원·공사 직원을 선택(복수응답)했고, 다음이 ▲의사(30.6%) ▲금융직(28.8%) ▲회계사·변리사·세무사(28.6%) ▲교사(21.8%) 등 순이었다.

남성 응답자는 55.5%(402명)가 교사를 선호했다. 이어 ▲공무원·공사직원(48.9%) ▲일반 사무직(35.1%) ▲금융직(28.5%) ▲약사(23.2%) 등의 순으로 답했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서울 주요대 학생부·논술 비중 늘려

2008 입시안 확정 발표

서울 지역 주요 대학들이 2008학년도부터 수시 1학기 전형에 학생부·논술 비중을 늘리는 입시안을 확정, 21일 발표했다.

연세대는 수시 1학기 전형을 폐지하고 정시모집은 학생부·수능·논술로, 수시 2학기 일반 우수자 전형은 학생부·논술로 각각 합격자를 선발키로 했다. 반영비율은 정시모집의 경우 학생부 50%·수능 40%·논술 10%다. 수시 2학기 모집은 학생부 50%·논술 50%로 합격자를 가릴 계

획이다. 한양대는 학생부 반영 비율을 정시와 수시모집 모두 기존 40%에서 50%로 늘리기로 했다. 인문계 정시 논술은 5%에서 10%로 반영 비율을 높이고, 자연계 정시 모집에서도 논술이 도입됐다.

서강대도 수시 1학기 전형을 폐지하고, 수시 2학기에 학생부만으로 합격자를 뽑는다는 내용의 입시안을 확정했다. 성균관대와 숙명여대도 논술 비중을 현행 3%에서 각각 5%와 20%로 늘리는 입시안을 확정했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한반도 올 겨울 엘니뇨 온다

이상기후 발생 우려

올 겨울에는 우리나라도 엘니뇨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21일 올 겨울 엘니뇨 현상이 발생해 전 세계적으로 겨울철 기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상청은 “지난 5월 이후 적도 중태평양 지역의 해수면 온도가 0.5~1.5도 높은 고수온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며 “고수온 상태는 이번 겨울철 엘니뇨로 발달해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상청은 “엘니뇨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는 겨울철의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되며 기온의 변동 폭이 커지면서 이상기상 현상이 발생

할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엘니뇨가 발생했던 1997~1998년 겨울에는 베트남에서 열기 열병으로 380여 명이 숨지고 약 24만 명이 감염됐으며, 우리나라도 겨울철에 대설 등 이상기상으로 751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조선대 ‘취업 페스티벌’ 조선대가 개교 60주년을 기념해 21일 대학 중앙도서관 1층에서 개최한 ‘취업 페스티벌’에서 학생들이 기업 관계자로부터 채용관련 정보를 듣고 있다. 22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지역 우수 기업 채용박람회 ▲화상면접 ▲잡 페스티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금 매매차익 미끼 사기 ‘조심’

광주 한달새 5~6건 피해

최근 금(金) 값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것을 악용, 금 매매로 돈을 벌어 보자며 주부들을 속인 뒤 매입 대금만 챙겨 달아나는 사기단이 활개를 치고 있다.

21일 광주 동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11시40분께 광주시 동구

대인동의 한 다방에서 김모(여·46) 씨가 50대로 보이는 남자에게 금을 구입하라며 800만원을 건네 줬지만, 이후 연락이 끊겨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경찰에서 “한 달 전 만난 이 사람이 ‘금을 싹쓸이 사서 고가에 되팔아 이익을 챙기자고 해 돈을 줬다’고 진술했다.

광주의 일선 경찰서에는 지난달 초

부터 비슷한 수법으로 돈을 사기당한 사람들의 신고가 5~6건이 접수됐다. 경찰은 이 남자 외에 3명의 일행이 더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주부들의 피해액은 1억3천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한편 금 값은 지난 5월 몬스(28.35g)당 725달러(70여만원)에 달해 2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변동이 심해 사고 파는 시기를 적절히 조절하면 차익을 챙길 수 있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2007년 대학 수시입학자를 위한 중국어 초급기원서 프로젝트

“합격으로 관이 하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회! 중국어 입문부터 HSK대비까지 3개월 집중연습!”

한국어 기초능력시험 + HSK능력시험

1월	입학자	한국어 기초능력시험	한국어 기초능력시험
2월	입학자	한국어 기초능력시험	한국어 기초능력시험
3월	입학자	한국어 기초능력시험	한국어 기초능력시험

중국어 지원학교 리틀자이나 中国語学院

문의: 010-9701-233-9582

광주 전남 이용기능장 1호

가발

시술 12년 경력의 최고실력! 이수재원장 직점시술관리

심는기발 평생!!

대신님네 프럼모가발맞춤